

영유아기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양상*

Mother's Expectations Regarding Her Child's Self-Regulatory Behaviors

김 정 원**
Kim, Jungwo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ectations of 186 Korean mothers regarding the self-regulatory behaviors of their 1-to 5-year old child. A questionnaire for mothers was prepared which consists of nine categories identified in previous research : safety rules, personal property rules, interpersonal rules, food-related rules, independence requests, self-care rules, family routines, delay, manners, obedience rules, and academic skills and attitude. Data consisted of questionnaires completed by the mothers. Findings were that (1) mothers had high expectations regarding self-regulatory behaviors about safety and independence but low expectations regarding family routines and personal property self-regulation, (2) their expectations increased with age of child, (3) the pattern of expectations did not change with age, and (4) expectations were higher with lower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mother.

Key Words : 유아(preschool children), 자기 규제 행동(self-regulatory behaviors), 어머니의 요구(mothers' expectations)

* 접수 2002년 4월 30일, 채택 2002년 5월 21일

* 본 연구는 2001학년도 한국성서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한국성서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영유아보육학전공 전임강사, E-mail : jungwkim@bible.ac.kr

I. 서 론

유아가 사회인으로서 올바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기부터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관습이나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규제가 가능해져야만 기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원, 2001). 충동 통제나 자기 통제라는 어휘로 사용되기도 하는 자기 규제란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고, 특정 활동에의 참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Bronson, 2000) 출생 후 즉시 나타나는 이러한 능력은(Kopp, 1982) 기질과 같은 유아의 내재적 특성과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Plomin, 1990; Sroufe, 1995).

자기 규제 능력은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고 유혹에 저항할 수 있으며 불쾌한 상황을 인내해낼 수 있고 성인의 지시에 순응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기 규제 능력은 영유아기 이후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곽혜경, 조복희, 1999; Honig, 1985). 자기 규제 능력이 발달된 유아는 이후 발달의 과정에서 신중하고 주의 집중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등의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내며(Funder & Block, 1989), 영유아기 이후의 학업 성취도에도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opez, Baltes, & Oettingen, 1998). 이와 같이 자기 규제 능력은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독특한 특성으로써(Kendall & Wilcox, 1979) 유아의 이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들 중의 한가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규제 능력은 유아기 이후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성취되는 능력이 아니라 영유아기로부터 점차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Kopp, 1982). 영아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 등의 성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기존 사회에는 적절한 행동의 기준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인식이 이루어진 후에 특정 행동의 기준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성인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며 결국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에 맞도록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기 규제가 가능한 연령을 2세 정도로 보고 있으나 어머니의 지시에 대하여 반응할 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은 9개월 정도면 이미 관찰이 가능하다고 한다 (Berk, 2000; Kopp, 1982). 즉 유아가 자신을 스스로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습득되는 시기에 이르면 유아의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규제 능력은 순종의 유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Berk, 2000) 12-18개월 정도가 되면 유아는 양육자의 희망과 기대를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하여 간단한 요구와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만 3세 정도가 되면 진보된 형태의 자기 규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기 규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Kaler & Kopp, 1990; Olenick, 1984; Voughn, Kopp, & Krakow, 1984). 특히 만 3세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시도하려는 경향이 표현되는 시기로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 다루기 힘든 자녀에 대한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만 5세의 경우 초등학교에서의 형식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높일 것이 기대되는 시기이다. 결국 한 인간의 일생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 규제 능력은 생후 9-18개월 정도의 영아기 초기에 습득되기 시작하여 만 3-5세를 거쳐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시기 동안에 적절한 자기 규제 능력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여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에 관한 사회학습 이론가들의 관점을 보면 이 능력은 생태적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내부로 발달해 가는 능력으로 보상과 처벌의 과정을 통하여 획득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양육자의 특성 또는 양육 방식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Kuczynski, Kochanska, Radke-Yellow, & Girnius, 1987). 초기 도덕적, 사회적 규칙의 획득에 관한 걸음마기 유아의 이해와 순종의 발달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볼 때도 특히 부모가 많은 영향을 기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하여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자녀들에게 요구하며,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제한하면서 자녀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Dunn & Munn, 1985; Gralinski & Kopp, 1993). 부모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자기규제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두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다. Peters(1987)도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의 틀을 통하여 제공하는 질서의 틀이 유아의 자율성 발달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고 특히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였다(김남희, 1999, 재인용). Olenick(1984)에 의하면 부모는 특히 18개월 된 자녀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녀의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유아들이 어린 시기를 보내는 가정환경과 부모 변인이 유아의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 양육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행동적 자기 규제를 촉진하거나 주 양육자의 기준을 유아로 전이시키는 매개적 존재로서의 양육자의 성격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Gralinski & Kopp, 1993). 부모의 따뜻함, 민감성, 반응성, 권위적인 자녀 양육 태도, 아동 중심적 가족 관리 기술과 통제 등도 유아의 자기 규제 행동의 발달을 위한 핵심 변인들로 인식되고 있다(Kuczynski, 1984; Parpal & Maccoby, 1985). 따뜻하고 민감한 양육과 성숙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나 기꺼이 순종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Kochanska, Aksan, & Koenig, 1995).

영유아기 자녀의 자기 규제 능력의 성취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과 부모 변인들 중에서 특히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Smetana, Kochanska, 그리고 Chuang(2000)은 걸음마기 유아의 일상 생활에서의 규칙의 획득을 통한 자기 규제 능력 성취의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와 유아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규칙과 위반 행동을 구별하면서 사회화 과정에 참여하는데 걸음마기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인식한 주요한 사회적 행동의 유형으로는 도덕적 규칙 관련 행동 유형, 관습

적 행동 유형, 안전이나 건강 측면과 연관된 행동 유형, 개인적 행동 유형 등이 있다. Gralinski 와 Kopp(1993)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어머니가 다양한 요구를 함으로써 자녀의 자기 규제 능력의 획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유아의 안전, 개인적 재산의 보호, 타인에 대한 존경, 식사 규칙, 만족 지연, 예절, 자조 기술, 가족의 일상 규칙 등에 속한 행동들을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아에게 규칙을 부여하고 규칙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주된 양육자는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기 규제에 대한 특성과 함께 규칙을 부여하는 권위의 대상으로 기능함으로써 영유아의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조성민, 이순형, 1998). 특히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전반적인 자아 규제 점수와 많은 상관관계가 있었다(Brownell, Etheridge, Hungerford, & Kelley, 1997). 결국 영유아의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에 어머니 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 결과를 볼 때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자기 규제 행동이 능력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유아의 기본적인 자질로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자기 규제 행동의 발달에 가정의 여러 변인들 중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외국에서는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의 발달과 어머니의 다양한 행동 특성들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기 규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의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 변인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의 양상을 어머니와 자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조사 분석하여 사회 도덕적 발달의 중요한 한 부분인 영유아의 자기 규제 행동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유아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의 양상은 어떠한가?
2.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들의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양상은 어떠한가?
3. 어머니들의 연령, 학력, 직업의 유무, 자녀의 연령, 성별, 출생 순위 등의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양상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5곳

의 유아교육기관에 만 1세부터 5세의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186명이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 분	N(%)	계(%)
연령	30세 이하	47(25.26)	186(100)
	31-35세	106(56.98)	
	36세 이상	33(17.74)	
학력	고졸 이하	38(20.43)	186(100)
	전문대 졸	37(19.89)	
	대학 졸	89(47.84)	
	대학원 이상	22(11.82)	
직업의 유무	있다.	108(58.06)	186(100)
	없다.	77(41.39)	
	무응답	1(0.53)	
자녀의 연령	만1세	9(4.83)	186(100)
	만2세	35(18.81)	
	만3세	50(26.88)	
	만4세	61(32.79)	
	만5세	31(16.66)	
자녀의 성별	남아	99(53.22)	186(100)
	여아	87(46.77)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125(67.20)	186(100)
	둘째	56(30.10)	
	셋째 이상	5(2.68)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문헌 연구와 선형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유아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의 정도를 묻는 질문지였다. 질문지는 Smetana, Kochanska, 그리고 Chuang(2000), Gralinski와 Kopp(1993), 조성민과 이순형(1998) 등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구성되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2인에 의뢰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

다. 예비 조사를 거쳐 문항의 표현 등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질문지의 문항은 자녀의 안전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의 정도를 묻는 6문항, 타인의 소유물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의 정도를 묻는 6문항, 타인 존중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를 묻는 6문항, 식사 예절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묻는 5문항, 만족 지연 및 성인에 대한 예의 범절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묻는 10문항, 자조 기술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를 묻는 5문항, 가족 생활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묻는 3문항, 독립심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묻는 4문항, 학문적 기술 및 태도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묻는 3문항 등 총 45문항의 4점 척도형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지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9379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1년 11월 10일부터 12월 5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200부의 질문지를 서울특별시 소재 5개 유아교육 기관에 배부하여 회수된 질문지 중 통계 처리가 가능한 질문지 186부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통계 처리 과정에서 4점 척도 문항의 경우 ‘항상 말한다’에 4점, ‘거의 말하지 않는다’에 1점을 주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에 대해서는 Tukey 검증을 실시하여 사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를 분석·조사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들의 자녀의 안전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는 찾길 건널 때 손잡기(3.31), 위험한 물건 만지지 않기(3.14), 낯선 곳에서 엄마 가까이 있기(3.13) 등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차안에서 유아용 안전 의자에 앉아 있기(2.87)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기(2.54)의 문항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타인의 소유물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에서는 집안에서 물건 던지지 않기(2.60)와 엄마 아빠의 책 찢지 않기(2.36), 벽이나 가구에 낙서하지 않기(2.21) 등의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엄마 아빠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기는 1.43점으로 점수가 매우 낮았다.

타인 존중과 관련된 결과를 볼 때 어머니들은 친구나 형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3.22) 놀이감을 나누는 것(2.95),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꼬집지 않는 것(2.89)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요구를 하고 애완동물을 거칠게 대하지 않기(2.41)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강조하는 행동에 대한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애완 동물을 기르지 않는 가정이 많아서 자녀에게 그러한 행동에 대한 요구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식사예절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에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식사 시간동안 음식으로 장난치지 않기(2.93)와 돌아다니며 먹지 않는 행동

(2.86)에 대하여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약속한 장소에서 식사하고 (2.79) 음식물을 쏟아서 장난치지 않는(2.77)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식사시간 전에 간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에 비교적 낮은 점수(2.41)가 나온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식사 예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 중의 한가지인 식사 시간 전의 간식문제에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족 지연 및 성인에 관한 예의범절에 관련 요구에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긍정적인 예의범절과 순응에 관련된 내용인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3.48), 어른에게 존댓말 사용하기(3.21),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하기(3.14), 엄마아빠의 말 잘 듣기(3.02)에 대하여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의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성인에 대한 반항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훈육하는 내용인 엄마아빠에게 반항하지 말기(2.21),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지 말기(2.21), 엄마아빠의 말에 말대꾸하지 말기(1.95)에서는 요구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차례 지키기(2.97), 보채지 말기(2.56), 전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2.66)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왔다.

자조 기술 관련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를 보면 어머니가 알려주었을 때 이 닦고(3.18) 잠자리에 들고(3.03) 씻는(2.90) 등의 행동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높은 반면 혼자 화장실 사용하기(2.74)나 옷을 스스로 입기(2.48)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요구의 정도가 낮았다. 이는 만 1-2 세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수(23%)가 만

〈표 2〉 자녀의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

자기규제행동유형	자기규제행동의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유형별 평균
자녀의 안전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	찻길을 건널 때 엄마와 손을 잡기 위험한 물건 만지지 않기 낯선 곳에서 엄마 가까이에 있기 위생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만지지 않기 차안에서 유아용 시트에 조용히 앉아있기 소파나 탁자에서 뛰어내리지 않기	3.31 3.14 3.13 3.02 2.87 2.54	.83 .89 .92 .91 .91 .91	3.00
타인의 소유물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	집안에서 물건 던지지 않기 엄마 아빠의 책을 끊지 않기 벽이나 가구에 낙서하지 않기 장식장에 있는 장식물을 건드리지 않기 비디오 기계를 함부로 만지지 않기 엄마 아빠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기	2.60 2.36 2.21 2.02 2.02 1.43	.95 1.02 .98 .87 .89 .69	2.11
타인 존중에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	친구나 형제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친구나 형제와 놀 때 혼자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말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꼬집지 말기 친구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기 친구네 집에서 장난감을 몰래 가지고 오지 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에게 거칠게 대하지 말기	3.22 2.95 2.89 2.79 2.57 2.41	.88 .95 1.04 1.17 1.22 1.10	2.81
식사 예절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	음식으로 장난치지 않기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기 식사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만 먹기 물이나 음료수를 쏟아서 장난치지 않기 식사 전에 간식 먹지 않기	2.93 2.86 2.79 2.77 2.41	.99 .94 .91 1.04 .97	2.75
만족 지연 및 성인에 대한 예의범절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어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기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하기 엄마아빠의 말을 잘 듣기 놀이를 할 때 차례 지키기 엄마가 전화하고 있는 동안 기다리기 음식이 나올 때까지 보채지 말기 엄마아빠에게 반항하지 말기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지 말기 엄마아빠의 말에 말대꾸하지 말기	3.48 3.21 3.14 3.02 2.97 	.74 .86 .93 .85 .88 .88 .97 .93 .93 .91	2.73
자조 기술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	부모가 이 닦을 시간을 알려주면 이를 닦기 부모가 잘 시간이라고 하면 잠자리에 들기 부모가 씻으라고 하면 씻기 혼자서 화장실 사용하기 옷을 스스로 입기	3.18 3.03 2.90 2.74 2.48	.92 .91 1.01 1.02 .89	2.86
가족생활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	놀고 난 장난감은 스스로 정리하기 부모가 말하면 집안일 돋기 방이나 거실을 어지럽히지 않기	3.09 2.40 2.07	.81 .92 .88	2.52
독립심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	아이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말로 알리라고 하기 아이가 스스로 충계를 오르내리게 하기 아이가 스스로 걸으려고 하면 혼자 걷게 하기 조금 새롭거나 어려운 그림 맞추기나 게임을 해보라고 하기	3.27 3.09 3.08 2.64	.86 1.04 1.01 .87	3.02
학문적 기술 및 태도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다. 밤늦게까지 TV 시청을 하지 말라고 한다. 컴퓨터 게임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한다.	2.88 2.58 2.22	1.04 1.11 1.16	2.56

3-5세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수(77%)보다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발달 특성상 특정 유형의 행동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연령의 자녀를 가진 연구 대상의 수와 이미 이러한 요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연령의 자녀를 가진 연구 대상의 수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족생활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의 결과를 보면 자녀가 놀고 난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정도(3.09)가 집안일 돋기(2.40)나 방이나 거실 어지럽하지 않기(2.07)보다 높았다. 이는 방이나 거실 정리는 성인의 일로 여기는 어머니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립심 관련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를 보면 언어로 자신의 요구를 알리도록 하는 것(3.27)에 대하여 많은 강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계 오르내리기(3.09), 혼자 걷기 하기(3.08) 등 신체적인 측면의 독립심을 많이 강조하고, 이에 비하여 새로운 과업을 해 보도록 격려하는 인지적 차원의 독립에 대한 요구(2.64)는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언어적, 신체적 측면과 관련된 독립심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문적 기술 및 태도 관련 행동에 관한 요구에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2.88)을 가장 강조하여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밤늦게까지 TV 시청을 하지 않는 것(2.58)도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제재(2.22)는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구 대상 자녀들의 연령상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문제가 아직은 표면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어머니들이 컴퓨터에 관련된 활

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허용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자녀의 독립심(3.02)이나 안전(3.00), 자조 기술(2.86) 등과 관련된 자기 규제 행동을 강조하고 이에 비하여 가족의 공동생활 관련 행동(2.52)이나 타인의 소유물과 관련된 행동(2.11)에는 상대적으로 그 요구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2.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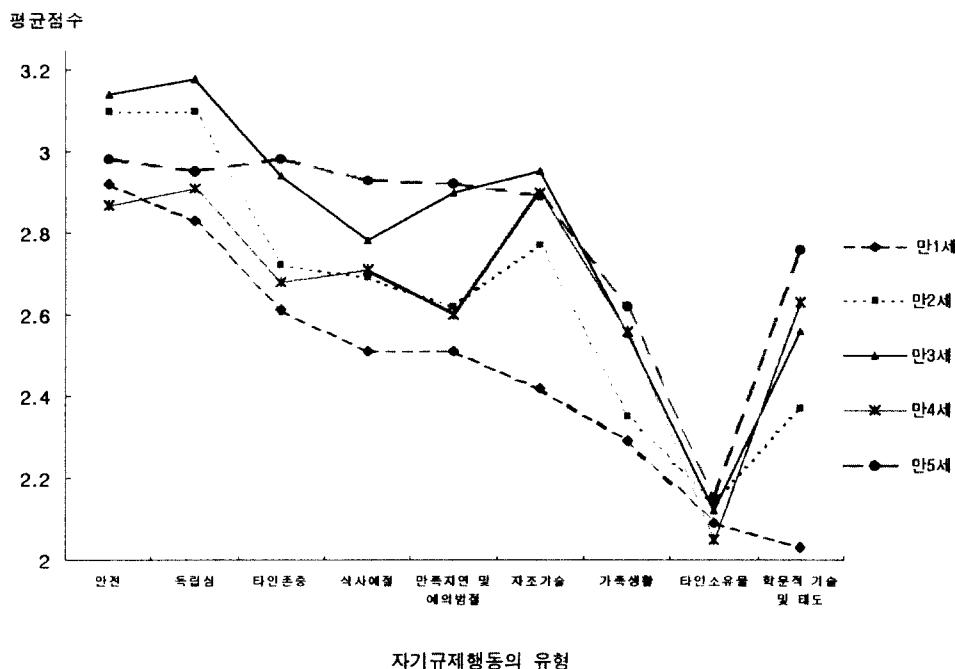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만 1세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를 보면 독립심 관련 행동(2.83)과 안전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2.92)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타인의 소유물 관련 행동(2.09)과 학문적 기술 및 태도 관련 행동(2.03)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만 2세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1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안전(3.10), 독립심(3.10), 자조 기술(2.77)과 관련된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였다. 이에 비하여 가족생활 관련 행동(2.35)이나 타인 소유물 관련 행동(2.14)에 대한 자기 규제는 비교적 그 점수가 낮았다.

만 3-5세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도 만 1-2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연구 대상들은 자녀의 독립심, 안전, 자조 기술과 관련된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았고 가족생활 관련 행동이나 타인의 소유물 관

〈표 3〉 연령에 따른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

자기규제행동 의 유형	연령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M (SD)				
자녀의 안전 관련 행동		2.92 (.85)	3.10 (.89)	3.14 (.84)	2.87 (.88)	2.98 (.95)
독립심 관련 행동		2.83 (.88)	3.10 (.83)	3.18 (.88)	2.91 (.99)	2.95 (1.03)
타인 존중 관련 행동		2.61 (1.12)	2.72 (1.09)	2.94 (1.00)	2.68 (1.04)	2.98 (1.04)
식사 예절 관련 행동		2.51 (.78)	2.69 (.97)	2.78 (.94)	2.71 (.98)	2.93 (.97)
만족 자연, 예의범절 관련 행동		2.51 (.85)	2.62 (.90)	2.90 (.86)	2.60 (.86)	2.92 (.85)
자조 기술 관련 행동		2.42 (1.07)	2.77 (.95)	2.95 (.90)	2.90 (.96)	2.89 (.91)
가족생활 관련 행동		2.29 (.69)	2.35 (.92)	2.55 (.86)	2.56 (.86)	2.62 (.86)
타인의 소유물 관련 행동		2.09 (.75)	2.14 (.91)	2.12 (.94)	2.05 (.86)	2.15 (.90)
학문적 기술 및 태도 관련 행동		2.03 (.90)	2.37 (1.21)	2.56 (1.09)	2.63 (1.07)	2.76 (1.06)
연령별 평균		2.47	2.65	2.79	2.66	2.80



〈그림 1〉 자녀의 연령에 따른 자기 규제 행동유형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

련 행동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 유형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의 변화 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3. 다양한 변인에 따른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의 차이

어머니들의 연령, 학력, 직업의 유무, 자녀의

연령, 성별, 출생 순위 등의 변인에 따라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표 6>의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안전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가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ukey 검증을 통해 사후 검증한 결과 30세 이하 연령의 어머니들의 집단이 31-35세, 36세 이상 연령의 집단에 비해

<표 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요구 정도에서의 차이

자기 규제 행동의 내용	나이	평균	Tukey	F값
자녀의 안전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	30세 이하	19.2449	B	
	31-35세	17.6055	A	3.933*
	36세 이상	17.5152	A	

*P<.05

<표 5>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요구 정도에서의 차이

자기 규제 행동의 내용	학력	평균	Tukey	F값
자녀의 안전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 정도	고등학교 이하	19.1622	B	
	전문대 졸	18.6154	B	
	대학 졸	17.6957	A	2.683*
	대학원 이상	17.3696	A	
타인의 소유물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 정도	고등학교 이하	15.0286	B	
	전문대 졸	11.9487	A	
	대학 졸	12.0220	A	7.161**
	대학원 이상	12.0000	A	
식사 예절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 정도	고등학교 이하	15.3421	B	
	전문대 졸	13.3947	A	
	대학 졸	13.6304	A	4.566*
	대학원 이상	13.2273	A	
가족 생활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 정도	고등학교 이하	8.2973	B	
	전문대 졸	7.4615	A	
	대학 졸	7.4444	A	2.748*
	대학원 이상	6.9565	A	

*P<.05 **P<.01

자녀의 안전에 관련된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자녀의 안전 관련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 타인의 소유물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 정도, 식사 예절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 정도, 가족생활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 정도 등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안전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에서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과 전문대 졸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의 집단이 대학 졸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의 집단에 비하여 요구의 정도가 높았다. 자녀의 타인의 소유물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에서는 유의수준 .01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의 집단이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의 집단에 비하여 자녀의 타인의 소유물 관련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식사 예절 관련 자녀의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와 가족생활 관련 규제 행위에 대한 요구의 정도에서도 유의 수준 .05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

<표 6> 자녀의 연령에 따른 요구 정도에서의 차이

자기 규제 행동의 내용	나이	평균	Tukey	F값
식사 예절	만 1세	25.1111	A	
관련	만 2세	26.2258	A	
자기규제	만 3세	29.2083		B 3.989*
행동에 대한	만 4세	25.9092	A	
요구	만 5세	29.2188		B

*P<.05

니들의 집단이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의 집단에 비하여 식사 예절 관련 행동과 가족 생활 관련 행동에서 요구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직업의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들의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사 예

절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에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만 3세, 5세일 때 1세, 2세, 4세일 때보다 어머니들의 식사 예절 관련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성별과 출생 순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 도덕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유형의 유아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만 1세에서 만 5세 연령의 자녀를 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독립심 관련 자기규제 행동,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자기 규제 행동, 자조 기술과 관련된 자기 규제 행동과 타인 존중 관련 자기규제 행동 등의 순으로 높은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타인의 소유물과 관련된 행동에서는 가장 낮은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생활을 공유하기 위하여 함께 해야 할 자기 규제 행동이나 학문적 기술 및 태도 관련 행동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은 요구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자기 규제 관련 행동들 중에서 안전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자녀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Gralinsky와

Kopp(1993)의 연구 결과와 Smetana, Kochanska, 그리고 Chuang(2000) 등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도 자녀의 안전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찾길에서의 교통안전과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다클 가능성, 그리고 유괴나 미아 등의 위험을 높이 인식하고 있음으로써 현대 사회의 환경적 특성에서 기인한 다양한 위험 요소와 관련된 행동에 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차량용 안전 의자 사용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에 대한 주의는 덜 하고 있음을 볼 때 현대 사회의 자동차 문화에서 유아의 안전에 결정적인 위험 요소로 대두된 교통사고(성은현, 윤선화, 2002)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는 비교적 적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균원적인 안전 관련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을 해보도록 요구하는 독립심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가능한 일찍 다양한 영역

에서 발달적 성취를 이를 수 있기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어머니들의 특성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오효선, 2001; Elkind, 1998). 그러나 학문적 기술 및 태도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일관성이 없는 결과로 대상 어머니들의 자녀의 연령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이전의 유아들이었기 때문에 학문적 기술 및 태도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보다 독립심 관련 행동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한 것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 특성에 대하여 적절히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요구의 정도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타인 존중 관련 행동, 식사 예절 관련 행동, 만족 지연 및 성인에 대한 예의범절 관련 행동 등의 유형에서 비교적 높은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사회적 규범에 관한 자기 규제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족 공동생활 관련 행동 유형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난 것에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가족생활 중 공동의 일에 대한 책임 있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정도가 낮고 부모나 다른 가족들에게 사사로이 속한 공간이나 공동의 공간에 관한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해서도 비교적 강조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가정에서 자녀에게 각자의 책무를 분담시키고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구하는 정도가 낮은 동시에 가족 개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존중하려는 태도보다는 ‘우리’라는 전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사사로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정도가 약한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의 특성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오세철, 1982;

최재석, 1994; Hamner & Turner, 1996).

자녀의 연령에 따른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관한 어머니들의 요구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전체 요구의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적인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한 성인들이 요구하는 규범 준수에 대한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여 지킬 수 있다(조성민, 이순형, 1998)는 것을 인식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높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어머니들의 인식이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를 높게 한다는 Gralinski와 Kopp(1993), Kopp(1982)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결과로 연령에 따른 과제인내로 표현한 자기 규제 행동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강기숙과 이경님(2001)의 연구 결과나 Holtz와 Lehman(1995)의 연구 결과의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닐지라도 만 4세 보다 만 3세에서 더 높은 요구의 정도가 나타난 것은 만 3세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아를 갖게 되는 연령으로 보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유효순, 1997; Berk, 2000)에 따라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자기 규제에 대한 요구를 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만 3세가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기관 등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전이의 시기이기 때문에(김정원, 1999)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높은 정도의 자기 규제 행동을 요구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즉 만 3세 경에 보다 진보된 형태의 자기 통제가 출현한다는 Kopp(1982)의 연구 결

과를 지원해주는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집단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만 3세 유아에게 보다 많은 정도의 자기 규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자기 규제 행동의 유형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이 일관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의 안전 관련 자기규제 행동과 독립심 관련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하여 높은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자녀의 자조 기술 관련 자기 규제 행동과 타인 존중에 관련된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정도의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소유물 관련 규제 행동이나 가족생활 공유를 위한 자기 규제 행동 등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낮은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요구에 대한 자녀의 순응의 정도가 결음마기부터 만 5세 유아에게 이르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한 Kuczynski와 Kochanska(1990)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어머니의 요구에 따른 자녀의 반응 행동이 연령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음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요구의 양상도 연령에 따른 뚜렷한 변화가 없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의 자기 규제와 관련된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한 Brownell, Etheridge, Hungerford, 그리고 Kelley(1997)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전, 소유, 그리고 타인 존중에 관한 협소한 차원의 요구로부터 사회적 규범 등에 관한 것으로 점차 그 요구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된 Gralinski와

Kopp(1993)의 연구 결과와 만 1세 후반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가 만 2-3세가 되면 가족과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규칙을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Kopp(1982)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즉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를 보다 폭넓은 사회적 규범 학습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확대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높은 차원의 자기규제 행동을 요구할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의 유무, 자녀의 연령, 성별, 출생 순위 등의 변인에 따라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연령이 적은 어머니들의 집단이 자녀의 안전 관련 자기규제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건부 제한의 통제 전략을 연령이 많은 어머니들이 더 많이 사용했다는 곽혜경과 조복희(1999)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 중 30세 이하의 연령층의 어머니들이 31-35세, 36세 이상 연령층의 어머니 집단보다 안전한 자녀 양육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녀의 안전에 대하여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즉 부모 역할 초기의 어머니들이 이후 단계에 속하는 어머니 집단보다 안전한 자녀 양육에 관한 관심과 불안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력이 낮은 어머니 집단이 안전 관련 행동, 타인의 소유물 관련 행동, 식사 예절 관련 행동, 그리

고 가족생활 관련 행동 등에서 학력이 높은 어머니 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수준이 낮은 어머니 집단이 더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꽈혜경과 조복희(1999)의 연구 결과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에 대한 통제 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김효정(1991)의 연구 결과,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힘에 근거한 보다 강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자녀의 반항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모의 요구도 더불어 증가한다는 Crockenberg와 Litman(1990)과 유사한 연구 결과이다. 결국 사회 경제적 지위로부터 기인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가 어머니의 요구에 대한 자녀의 반응에 차이를 가져오며 다시 어머니의 요구의 강도에 변화가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자녀가 비교적 긍정적인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들이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하여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거나 혹은 고학력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의 연령에 적절한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정도의 자기 규제 행동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고학력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통제 의도의 부족, 혹은 통제 능력의 상실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학력에 따른 어머니들의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관련 연구들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자녀의 연령, 성별, 출생 순위 등의 변인에 따른 어머니들의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식사 예절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서 만 3,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만 1, 2, 4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유아의 경우 처음으로 유아교육기관 등에서 단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만 5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시기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단체 생활에의 적응을 위하여 특히 식사 예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자기 규제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성별과 출생 순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의 해석 및 논의에 근거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독립심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와 안전 관련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가족 공동생활과 관련된 자기 규제 행동이나 타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안전 관련 행동과 독립심 관련 행동 등 어머니들이 높은 요구를 하는 행동과 더불어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장하고 타인의 소유물 등을 존중해주는 행동도 유아들이 자라서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기 규제 능력이므로 어머니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유형의 자기 규제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점점 강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이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가 가정과 사회의 규칙, 그리고 이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를 인식할 능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 유형에 대한 요구는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만 1세에서 5세의 전 연령에 걸쳐 자녀의 독립심 관련 자기규제 행동, 안전 관련 자기규제 행동, 자조 기술 관련 자기규제 행동 등에서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소유물을 인정하고 가족 공동의 일에 관하여 책임감을 가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특정 유형의 자기 규제 행동 등에서는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의 범위를 가족 공동체나 사회적 규범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가족과 사회 등의 공동체 생활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요구 정도가 낮은 유형의 자기규제 행동도 매우 중요하므로 유아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등 이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머니들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볼 때 학력이 낮은 어머니들의 집단이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의 집단에서보다 자녀들의 다양한 유형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사회 도덕적 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학력이 낮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근거해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도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반면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하여 자녀에게 높은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것은 자녀의 사회 도덕적 적응 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특히 자녀의 사회 도덕적 발달의 양상과 부모의 자기 규제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자녀의 자기 규제 행동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특별시의 특정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어머니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대상 선정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곽혜경·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 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5.
- 김남희(1999). 어머니의 언어 통제 유형과 유아의 자율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원(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원(2001, 여름). 자기통제가 가능한 자녀로 키우세요. 삼성어린이개발센터 소식지, pp 18-19.
-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은현·윤선희(2002). 유아 교통안전교육 체계화를 위한 연구. 영유아 안전의 체계화를 위한 방향 모색, 2002년도 한국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7-83.
- 오세철(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 : 박영사.
- 오효선(2001). 취학전 유아의 조기 교육 실태 조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효순(1997). 아동발달.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조성민·이순형(1998). 상황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에 대한 판단. 아동학회지, 19(2), 147-157.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 현음사.
- Berk, L. (2000). *Child Development*(7th ed.). Allyn & Bacon.
- Bronson, M. B. (2000). Recogniz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5(2), 32-37.
- Brownell, C. A., Etheridge, W., Hungerford, A., & Kelley, S. (1997). *Socialization of self-regulation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ver age and contex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ED424902.
- Dunn, J., & Munn, P. (1985). Becoming a family member : Family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56, 764-774.
- Elkind, D. (1998). 유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이은화, 조순옥, 김정원, 강숙현(공역). 서울 : 창지사. (원본발행일 1993).
- Funder, D. C., & Block, J. (1989). The role of ego-control, ego-resiliency, and IQ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41-1050.
- Gralinski, J. H., & Kopp, C. B. (1993). Everyday rules for behavior :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573-584.
- Hamner, T. J., & Turner, P. H. (1996).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3rd ed.). Prentice-Hall Inc.
- Holtz, B. A., & Lehman, E. B. (1995).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and use of strategies for self-control in a resistance-to-distraction task. *Merrill-Palmer Quarterly*, 41, 361-380.
- Honig, A. S. (1985). Compliance, control, and discipline, *Young Children*, 40, 50-58.
- Kaler, S. R., & Kopp, C. B. (1990). Compliance and comprehension in very young toddlers. *Child Development*, 61, 1997-2003.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ochanska, G., Aksan, N., & Koenig, G.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ots of preschoolers' conscience : Committed compliance and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1752-1769.
- Kopp, C. B. (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uczynski, L. (1984). Socialization goal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 Strategies for long-term and short-term 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61-1073.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0). Development of children's noncompliance strategie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26*(3), 398-408.
-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 Girnus-Brown, O. (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99-806.
- Lopez, D. F., Little, T. D., Baltes, P. B., & Oettingen, G. (1998). Self-regulation and school performance : Is there optimal level of action-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0*(1), 54-74.
- Olenick, M. (1984). *Family and childcare influence on toddler's compliance in a laboratory sett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D254301.
- Parpal, M., & Maccoby, E. E. (1985). Maternal responsiveness and subsequent child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6*, 1326-1334.
- Peters, R. S. (1987). *The concept of education*. London : RKP.
- Maccoby, E. E. (1984).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55*, 317-328.
- Plomin, R. (1990). *Nature and nurture : An introduction to human behavioral genetics*.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 Smetana, J. G., Kochanska, G., & Chuang, S. (2000). Mothers' conceptions of everyday rules for young toddlers :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6*(3), 391-416.
- Sroufe, L. A. (1995). *Emotional development :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ughn, B. E., Kopp, C. B., & Krakow, J. B. (1984).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self-control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5*, 990-1004.